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쿠팡, 추석 식품 선물세트 본 판매 돌입 최대 50% 할인 혜택

2025. 9. 25.

- **신선·가공식품 추석 선물세트 1400여개 본 판매 실속형부터 프리미엄까지 최대 50% 할인**
- **내달 5일까지 1900여개 인기 식품 브랜드 추석 먹거리 1만3000여개 최대 60% 할인**

2025. 09. 25. 서울 - 쿠팡이 한가위를 앞두고 신선·가공식품 추석 선물세트 1400여개를 최대 50% 할인가에 선보인다. 지난 사전예약에 이어 본 판매를 본격 개시하는 것으로, 풍성한 할인 혜택과 실속형부터 프리미엄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준비했다.

올해 추석 식품 선물세트는 실속 소비부터 프리미엄까지 다양한 고객 취향에 맞춰 준비했다. 가성비 세트에 해당되는 5만원 미만 가격대 비중은 약 절반으로, 전체 1400여개 식품 선물세트 중 700여개에 달한다. 한우·전복 등 프리미엄 세트도 200여개 규모로 선보인다.

먼저 정육·과일·수산 등의 '신선식품' 선물세트는 내달 6일까지 최대 50% 할인 혜택가에 만날 수 있다. 정육 대표 상품으로 '농협안심한우 1등급 채반선물세트'를 행사카드 결제 시 최대 37% 할인을 적용해 10만원대 초반에 선보인다.

설로인·우미학·아라보감·벨로타벨로타·메종엠오 등 유명 브랜드의 한우·굴비·전복·샤퀴테리 등 다양한 프리미엄 선물세트도 마련했다. 프리미엄 대표상품으로 '초록바다 법성포 참굴비 오가세트'를 할인가 30만원대에 준비했다.

새로운 브랜드도 함께한다. 1964년 개업해 60여년 이상 명맥을 이어온 '해운대암소갈비집'의 양념갈비, 2002년 부산에서 시작된 '겐츠 베이커리'의 롤케이크·쿠키 등이 대표적이다.

통조림·오일·견과·차 등의 '가공식품' 선물세트는 내달 5일까지 최대 50% 할인가에 선보인다. 청정원·동원·폰타나·오설록·오트리·담터·정관장 등 인기 브랜드가 함께한다.

대표상품으로 △동원 튜나리챔 100C호 △오설록 블루밍 티 기프트 9종 △정관장 홍삼진고 등을 준비했다. 신상품 프리미엄 세트로는 △안달루니아 유기농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인산가 데이넛츠 믹스넛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명절 수요가 높은 간식·식재료·건강식품 등 1만3000여개의 추석 먹거리도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1900여개 브랜드의 식품을 가격대별 추천 등 다양한 테마관을 통해 선보인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추석 식품 선물세트 본 판매 기획전은 합리적인 실속형부터 프리미엄 라인업까지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준비했다"며 "할인 혜택까지 더해 소중한 분들에게 정성을 담은 선물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